

새로운 바다를 발견

성 호세마리아의 지도 아래

내적 생활의 풍경을 바꾸는 경우의 발견

LUCASBUCH

루카스 부크

새로운 바다를 발견

성 호세마리아의 지도 아래

내적 생활의 풍경을 바꾸는 경우의 발견

© 저작권 2018 - 오푸스데이 안내소 -

www.opusdei.or.kr/

목차

머리말	4
1. "하느님의 자녀를 위한 첫 기도"	9
간행물: "십자가를 지니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2. "예수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38
3. "예수님의 오른손 상처에서"	62
4.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세요"	81
5.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104
에필로그	126

머리말

성인들의 삶은 빛이 되어 밤이 되면 우리 삶의 길을 밝혀 준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며,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를 영원토록 포용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페이지에서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의 거룩한 삶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젊은 사제 시절에 그가 겪은 발견 중 일부에서. 많은 사람이 지적한 것들이, 성 호세마리아는 "하느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여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셨다. ¹ 이 길은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길이다.

자, 이 내적 여정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이 길은 알려진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 분명하게 보인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힘과 깊이로 인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성 호세마리아는 「대장간」에서 말한다:

"인간의 사랑에서처럼, 우리는 내적 생활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대는 종종 똑같은 주제를 묵상해야 합니다. 옛날 발견한 것을 재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전에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대는 놀라서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돌이라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흘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흡수하기를 원한다면 똑같은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 그 주제들은 똑같은 것이 아니므로 - 묵상해야 합니다." ²

'똑같은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은 하느님의 풍요로움에 우리 자신을 열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관상의 길이다. 바다를 향해하는 일이다. 언뜻 보기에 그 바다는 우리의 일상 풍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다. 지중해는 알려진 바다였다. 성 호세마리아는 '지중해 재발견'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로 들어가자마자, 넓은 의심의 지평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의 말에 따라 "하느님께 말할 수 있다: "당신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내가 더 많이 찾을수록, 내가 더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당신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³

이러한 발견은 하느님이 언제 어떻게 그분이 원하는지

우리에게 주는 빛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의 침착한 생각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전에 어둠 속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태양을 볼 때, 그는 육체의 시선에 비추어지고, 그가 보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자기의 영혼 안에 계몽되어 있으며,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 ⁴ 이 페이지들에서는 성 호세마리아가 내적 생활에서 발견한 '지중해'를 살펴본다. 우리는 이렇게 발견한 지중해와 함께 "하느님의 사랑 깊은 곳으로 깊어질 것입니다." ⁵

각주

¹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97.

² 성 호세마리아, 「대장간」, 540.

³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대화」, 167.

⁴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교리교육」 16,16.

⁵ 본서에 수록된 본문(간행물과 에필로그 제외)은 2018년 오푸스데이 홈페이지(www.opusdei.or.kr)에 게재되었다.

1.

"하느님의 자녀를 위한 첫 기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뿌리 깊은 신념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태 6,9).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써 자신을 제시했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라고 가르쳤다. 제자들은 예수가 유대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말하던 것과 같은 말로 하느님께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령을 받아들이자 사도들도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심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것으로 삼았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로마 8,15-16)

제자들을 자신감으로 가득 채우고 뜻밖의 대담함을 준 것은 신념이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로마 8,17) 예수님은 성부의 외아드님일 뿐 아니라 "많은 형제 가운데 맏이가 되게 하셨습니다."(로마 8,29).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생명은 사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으로 드리났다. 이것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찬 현실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요한 사도의 첫째 서간에서 사도의 기쁜 말씀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1요한 3,1)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특별하고도 부드러운 사랑을 지닌 하느님의 부성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옳은 것을 배우게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개인적이고 생동감 있는 방법으로 이 책을 발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와 신뢰의 '지중해'가 우리 눈 앞에 펼쳐진다. 이것은 우리 평생 더 깊이 갈 수 있는 엄청난 지평이다. 성 호세마리아에게 이것은 예기치 않은 발견이었다. 갑자기 숨어있었던 파노라마가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여러 해 뒤에 기억했듯이 1931년 가을에 일어났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첫 기도가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기도하듯이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하느님의 갈망을 느끼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길거리와 전차에 있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반 동안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¹

다음 달에 성 호세마리아는 이러한 생각을 거듭 말하였다. 그는 예를 들어 연피정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첫날. 하느님께서서는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² 하루 종일 하느님의 부성에 대해 생각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러한 연장된 묵상 기간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임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기도에서도 우리가 하느님께 향할 때마다 먼저 포기와 감사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배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과 이 방침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느님은 누구신가요?

성 호세마리아처럼 우리도 어릴 때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라는 급진적인 진리를 실제로 삶의 일부로 삼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어떻게 이 발견을 쉽게 할 수 있는가?

우선, 하느님의 아버지임을 진정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진정한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 나에게 하느님은 누구인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법을 강요하는 분,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위협하는 분, 자신의 의지가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분, 불복종할 때 화를 내는 분으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를 단지 내키지 않는 신하로 취급하는 주인. 다른 사례(이 또한 일부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사실이다)에서,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로 간주된다. 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만 정말로 원하지 않는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포악한 주인이나 엄격하고 사정없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관대함의 부족과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당신의 우정과 사랑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³

'하느님은 사랑입니다'(1 요한 4,8)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때때로 여러 곳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는 위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는 친구나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이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생각이 그들에게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은 특별히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신앙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삶에서 이 부족에 대한 고통이 가슴속에

아버지로서의 욕구가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지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즉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에게 소리치는 아버지다. 친구나 사제는 그들의 친밀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에페 3,15).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런 감정을 품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들 자신이 이미 그랬거나, 아니면 언젠가 되고 싶어한다는 표현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진실한 얼굴과 우리가, 그분의 자식들이 우리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하느님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다. 지상의 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일, 보인 결과에 대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이가 인생에서 잘되기를 바라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아이가 이미 자신의 눈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졌는지를 항상 알고 있다.

그것은 특히 우리가 무언가에 실패하거나 우리 자신의 삶과 세계가 우리가 지탱하는 '모델' 사이의 차이가 우리의 낮은 자존심을 야기할 때, 우리가 이 생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지명도'이며,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울하게 사는 것, 부정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저를 보고 싶어할 때, 저를 위해 하느님 자신의 꿈을 접어버리려 하듯이 곁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의 어떤 죄나 잘못도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⁴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 또한 하느님에게 우리 자신을 끄찍이 사랑받는 아이로

여겨지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가지는 것 -재능-이나 우리가 하는 것 -성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사랑 -하느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하느님은 "세상 창조 이전에"(에페 1,4) "우리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단언하셨다. 현대 세계에서 때때로 발견되는 신에 대한 차가운 생각을 고려할 때,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의 직책 시작 때부터 바로 "우리는 진화의 우연하고 무의미한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 사유의 산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사랑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존재입니다."⁵라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이 생각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나요?

하느님의 자녀들의 믿음직한 희망

성 호세마리아는 자주 오푸스데이의 회원들에게 "우리의 영적 생활의 토대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⁶ 그는 그것을 "신기한 목걸이의 진주를 하나로 묶는 '실'"에 비유했다. 하느님의 자녀임은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는 '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덕목은 하느님 자녀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⁷ 그러므로 하느님께 우리의 영적 생활 전체를 지탱하고 형체를 부여하는 이 "새로운 바다"를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느님의 자녀임에 대한 '실'은 "하느님 뜻을 위한 일상적인 비움"⁸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태도다. 따라서 성 호세마리아의 삶과 저술에서는 하느님의 자녀임이 '영적인 어린' 시절에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자주 넘어짐에 대해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전혀, 그가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보고 다시 해보라고 격려하는 한그것이 그의 희망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빠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러니 어서 가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는 아버지가 말하는 그 아이처럼 느낄 것이다: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마태 21,28) 아마도 우리의 첫 반응은 모든 종류의 가능한 어려움을 상상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큰 '신임'을 보이고 계시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버지 손에 내맡기는 것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에게 말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6) 성 호세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쳤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이 즐거운 현실에 굳건히

의지해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의 기도는 비록 어조는 다양하더라도 언제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저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런 일 또는 저런 일을 제게 맡기셨고, 저는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9

어려움이 있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대면할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분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하실 것이지만 우리 생각보다 유익한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당신 자신을 포기한다면,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건

만족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들이 희망했던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비록 당신이 하는 일들에다 모든 것을 집어넣고 필요한 모든 방법을 썼다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들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각'을 강화하기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가 오푸스데이 정신의 근간으로 '하느님의 자녀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임을 자각'을 가리킨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활은 그 '자각'을 떠맡는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확실성을 갖는 것은 가능한 한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된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의 진실은 우리 삶에 특정한 파장과 함께 유효한 현실이 된다. 이 '자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마음으로 그 현실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아버지다움, 우리의 자녀임 그리고 하느님 자녀들의 삶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에 관한 우리의 기도를 명상함으로써. 여기서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의 많은 본문에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¹¹ 또는 다른 성인과 그리스도교 저자들의 명상에서 많은 빛을 끌어낼 수 있다.¹²

우리는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을 믿고, 사랑 속에서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자각하려고 애쓰면서, 말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자녀의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짧은 기도나 화살기도로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성

호세마리아가 제안했다: "날마다 그분을 '아버지'하고 많이 부르고, 마음속으로 홀로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여서 자랑스럽고 힘이 납니다.'"¹³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전하게 깨닫고(깨달음의 보장으로) 우리가 매일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짧은 기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감사와 회개와 희망의 기도로 매일 하루를 끝낼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이들에게 이 기도를 제의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삶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결점이 아니라, 그것은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물인 인생 그 자체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기입니다."¹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가족은 우리가 피난과 휴식을 찾는 곳이고 "우리가 돌아오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하기 좋아했던 것처럼, 가족은 "사랑과 생명의 성소"이다.¹⁵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주는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바로 그 가족의 기원 속에 놓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피곤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분을 불쾌하게 했을 때 믿을 수 있게 그분께 돌아갈 수 있게 해 준다. 아버지 하느님으로 돌아가는 것도 '희망적 포기'의 또 다른 생활 방식이다. 우리는 종종 성 루카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명상해야 한다.(루카 15,11-32 참조). "하느님은 복음에 나온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방탕한 아들처럼 우리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응답이 아무리 형편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진정한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 경탄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¹⁶

아마도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끼친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가 놓친 것은 아버지 집안에서 가졌던 삶의 방식이었다.(루카 15,17-19 참조) 그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저 또 다른 하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고 -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 그에게 그의 가장 깊은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그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곧바로 좋은 옷과 샌들과 반지를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나쁜 행동조차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루된 것은 그의 친아들이었고, 그런 관계는 어떤 행동에도 결코 변하거나 파괴될 수 없었습니다."¹⁷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인 주인으로 볼 수도 있고, 냉정한 심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아버지로서 자기의 사랑에 충실하다. 우리가 쓰러진 후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은 언제나 그를 진정으로 발견할 놀라운 기회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 존엄성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자신조차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약함과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죄악의 실체를 보고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성 호세마리아가 말했듯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분의 구원과 자비가 있는 사랑의 말씀이며, 우리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¹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새로운 바다'를 뜻밖에도 발견했을 때 성 호세마리아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각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우리 자신의 진보와 발전의 해결책에 바탕을 두는 대신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기다리는 하느님 위에 중심을 두게 되면 그 내적 생활이 얼마나 다를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우선권을 준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삶을 거의 전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향상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생활 방식은 우리 영혼의 한구석에 잊혀진 하느님의 사랑을 남겨두는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와의 투쟁에 홀로 있으므로 실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느님이 하시는 일, 우리 자신을 그에게 사랑받게 하는 일, 그리고 매일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매우 다른 어조를 띠게 된다.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감사와 칭찬은 우리 내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만일 우리가 패배당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께 안기도록 하느님께 믿음직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임은 그 자신의 행위와 함께 특정한 덕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덕행이라는 주제의 '영구적인 상태'이다.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 덕행의

행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의 행사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¹⁹

하느님의 사랑을 매일 받아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패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죄악조차도 우리의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느님은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인사하러 오시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성호세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힘을 준다. "여러분과 저는 은총의 빛과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무엇을 태워 없애야 할지를 알아내서 그것을 태워야 하고, 또 무엇을 뿌리 뽑아야 할지를 알아내서 그것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내어 그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²⁰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 생활의 이상을 완벽주의와 혼동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불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²¹ 그런 다음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킬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발견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천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될 것이며, 그들은 거의 혹은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응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¹ 성 호세마리아, 1969/12/24 묵상기도.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브라다, 「오푸스데이 설립자」, 1권, 334.

² 성 호세마리아, 「개인 메모」, 1637.

³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64.

⁴ 프란치스코 교황, 2016/07/31, 폴란드에 세계청년대회의 강론

⁵ 베네딕토 16세 교황, 2005/04/24, 성하의 즉위 미사 강론.

- ⁶ 성 호세마리아, 편지, 1961/01/25.
- ⁷ 성 호세마리아, 설교의 메모, 1974/07/06.
- ⁸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 2017/02/14 사목 서간,
8.
- ⁹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143.
- ¹⁰ 성 호세마리아, 「밭고랑」, 860
- ¹¹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 「성 호세마리아에 대한
사전」에서 「하느님의 자녀」.
- ¹² 교황의 「자비의 희년」 선포는 이것 중 일부를
강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새복음화 촉진평의회,
자비의 희년 자료 참조.
- ¹³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150.
- ¹⁴ 프란치스코 교황, 2016/07/31 강론
- ¹⁵ 성 요한 바오로 2세, 2003/05/04 강론
- ¹⁶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64.
- ¹⁷ 성 요한 바오로 2세, 「자비로우신 하느님」 회칙,
1980/11/30, 5.

¹⁸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66

¹⁹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 & 이냐시오 데 셀라야,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 54.

²⁰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66.

²¹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 「성 호세마리아에 대한 사전」에서 「하느님의 자녀」.

간행물:
"십자가를 지니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부성은 우리가 하느님 자녀임을 통해 이해되며, 우리 앞에 거대한 전경을 열어주는 진정한 '지중해'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 존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느님 안과 하느님 앞에 둔다. 따라서 "하느님 자녀임은 특정한 덕이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를 갖는 것이며, 덕행이라는 주제의 영구적인 상태와 같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한 행동을 가지고 하느님 자녀로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의 모든 활동, 즉 덕행은
하느님 자녀임의 행사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¹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로마 8,21)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에 대한 자각은 고생,
고통,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여라는 우리 삶의 한
측면에 특정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성 마르코
복음서에서 이방인들은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죽은 것을 보고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다(마태오 15,39 참조). 성 요한 사도도 십자가가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한다.(요한
12,23-24 참조). 성 바오로 사도는 영광의 방법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1코린 1,23)과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마찬가지로 성 호세마리아의 삶에서도 하느님의 자녀임의 자각은 십자가의 경험 덕분에 깨어난 것이다. 30대 초반이었다. 그분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이 젊은 사제는 재정적 수단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와 형제자매의 고통을 보았고, 그분은 여전히 위태로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으며, 또 스페인에서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썼다.

"1931년경 하느님이 저에게 그런 타격을 주었을 때,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너는 내 아들"(시편 2,7)라는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 아빠!" 주님, 당신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행복과 기쁨을 찾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보는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²

이 경험은 성 호세마리아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자녀로서의 그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친밀한 결합의 문제였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서의 우리 상태는 십자가와 평행하다는 것이다. 그 역설은 수 년 후 성 호세마리아가 쓰던 '십자가의 길' 에서 그 표현을 발견하였다: ["우리들의 걸려 넘어짐과 패배가 우리를 더 이상 그분으로부터 갈라지게 하지 않게 되기를] 마치 연약한 아이가 뉘우치면서 자신을 자기 아버지의 힘센 팔에 내던지듯이,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멍에에 꼭 매달릴 것입니다."³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면 십자가는 우리의 자녀임의 확실한 표징이 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가장 큰 확신일 것이다 부분은 왼쪽에 영어문장이 없음

얼핏 보기에는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고통, 고생, 좌절)는,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의 표징과 그들이 피난하는 안전한 장소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성 십자가에 입 맞추고, 우리는 항상 성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십자가를 운반하는 자의 숨겨진 기쁨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각주

¹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 & 이냐시오 데 셀라야,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기」, 54.

² 성 호세마리아, 1963/04/28 묵상기도.

³ 성 호세마리아, 「십자가의 길」, 제7차

2. 예수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수많은 사람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치료법을 찾고 있는 아픈 사람들, 용서를 구하는 죄인, 단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분의 친구들은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의 벗인."(루카 12,4) 라자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탄성을 지른다.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한 11,36) 며칠 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이분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지닌 자는 없다. 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놀라움을 볼지도 모른다고 그는 주장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요한 15,15)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만드신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를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게 한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와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성령의 작용을 통해 우리는 개성을 해체하거나 인격을 잃지 않고 예수와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우정에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은총의 삶은 하느님과 '대면'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그분의 신비들과 행동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된다. 이러한

지식과 의도의 깊은 일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불쌍한 생명체인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¹ 우리는 같은 것을 원하고 추구할 수 있다. "같은 것을 사랑하고 같은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진정한 우정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다.

"또 다른 지중해"

성 호세마리아는 아주 어릴 때 예수님이 친구였고, 매우 특별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초기 경험은「길」의 여러 지점 중 한 점에서 표현되었다: "대화와 애정으로, 또 두터운 교분으로 이 세상 귀양살이를 한결 수월하게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우정을 그대는 찾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친구들이 배반도 하지만...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대는 왜, 그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저 위대한 친구와의 대화를, 두터운 교분을, 매일 더

열절하게 찾지 않는 것입니까?"²

성 호세마리아는 몇 년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전기 작가들은 그것을 신학교에서 영적 지도로 받은 조언과 연결한다.³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그리스도의 우정을 발견하면서 깊어졌다. 이 발전의 중요한 단계는 그의 생애에서 그가 하느님의 자녀임의 거대한 파노라마에 눈이 열린 시기였다. 스페인 세고비아에서 연피정을 하는 동안 그는 이렇게 썼다.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이 명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지중해': 예수님은 마음속의 모든 신성한 광기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친밀한 친구. 나의 하느님, 사람도."⁴

성 호세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우정에 대한 그분의 커져가는 자각을 "또 다른 지중해"라고 묘사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다. 그것은 그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새로운 눈으로 본 것이었다. 이

발견은 성 호세마리아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1930년대 초에 그는 1928년 10월 2일에 하느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을 수행하는 거대한 '일'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물질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해야만 했다. "저는 겨우 스물여섯 살, 하느님의 은총과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⁵ 이 새로운 발견 덕분에 열린 파노라마는 그가 자신의 임무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의 친구 예수는 그와 동행하여, 그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완벽하게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그분 또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성 호세마리아에게 예수의 성심은 이중적인 계시였다. 첫째,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이시며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엠마누엘의 마음입니다."⁶ 둘째, 그는 우리의 한계와 시련과 죄의 나락에 직면했을 때 예수의 이해와 부드러움을 깨달았다. 그는 개인 기도를 통해 「길」에서 한 점을 향해 쏟아져나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대의 친구입니다. 단 한 명뿐인 '거룩하신 친구'. 그대처럼 살로 된 심장을 지니시고 라자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을 지니신... 그리고 라자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⁷ 이 신성과 인간적인 무한하고 가까운 사랑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지지였다. 더구나 이 사랑은 그의 내적 생활에 현실성과 새로운 절박함을 주었다.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성 호세마리아는 그에게 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우정의 길을 따르도록 격려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형식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셨다.

다른 친구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에게 이야기해도 충분하다. 결국, 그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 부터 이런 대접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애정과 신뢰로 그분을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라자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멀리 계셨다고 "비난했습니다." "저희가 당신께 알려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자신 있게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처럼 사랑스러운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또 첫 열 두 제자가 그다지 초자연적인 이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도 당신을 따랐듯이 말입니다."⁹

성 호세마리아에 온 젊은이들은 그가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격려했다. 그는 일생 동안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다.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을 처음으로 쓴 사람

중 한 사람은 "이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과 제가 예수께 다가가서 예수를 알고 사랑해야 한다."¹⁰ 우정은 다른 사람을 알도록 요구하고, 우리의 친구로서 예수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첫 번째인 것이다. "그대는 내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에 대해서냐고요? 그분과 그대 자신에 대해서, 기쁨, 슬픔, 성공과 실패, 위대한 야망, 일상적인 걱정거리들, 심지어 그대의 나약함에 대해서도! 그리고 감사와 청원, 사랑과 통회. 간단히 말해, 그분을 알고 또 그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즉, '사귀기 위해서!'"¹¹

이 말들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화살기도 "주여, 나를 알고 당신을 알게 해 주소서"의 메아리를 담고 있다.¹² 마찬가지로 성 테레사가의 "친구들 간의 대화: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일대일 대화를 합니다."¹³ 요컨대 예수와 개인 관계는 내적 생활의 핵심이다. 세상 속에서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느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를 찾도록 배움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살면서 배운 것이다. 일상에서, 가족생활에서, 도시의 거리에서도, 시골에서도, 산길에서도, 바다에서도, 어디서나, 우리는 우리의 친구로서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 성 호세마리아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관상에 잠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군중의 소음 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과의 지속적인 대화 안에서 영혼의 침묵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즉 그들이 그분을 아버지로, 친구로, 미친 듯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¹⁴이라고 자주 강조하셨다. 우리 삶의 모든 면은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처럼 우리의 기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도행전에는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모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했습니다."¹⁵

우리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의 대화의 화두로 삼는 이 계속되는 개인 대화와 함께, 우리는 또한 항상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분이 좀 더 노골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했던 특정한 장소에서 그를 찾는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곳의 '장소'를 볼 수 있다.

우리 주님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복음사가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발표한다. 성 호세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 특히 복음서는 그의 손에는 유익한 가르침으로 가득 찬 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마주칠 수 있는 곳이었다."¹⁶

처음부터 오푸스데이에 접근한 사람들은 이 젊은 사제가 그의 설교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던 것처럼 하느님과 밀접한 결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느님과 대화할 때, 성 호세마리아는 우리와 대화할 때와 같은 직설로 성막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 가운데 하나처럼 느꼈습니다."¹⁷ 이것이 그가 계속 권했던 성경에 대한 접근법이다. "제가 충고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복음서의 여러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각들을 기억해 내고 묵상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선택한 장면 또는 신비를 떠올리십시오. 그다음에는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성심, 겸손, 순수함,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 등의 특정한 측면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다음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의 영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니,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어떤 암시가 느껴지고, 깨달음이 오며 주님의 부드러운 질책도 들을 것입니다."¹⁸

이 조언으로 성 호세마리아는 자기 영혼의 비밀을 우리에게 터놓고 있었다. 성경에 접근하는 길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을 받은 알바로 복자가 다음과 같이 썼다.

"성 호세마리아는 우리 주님과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과 함께, 처음 열두 사도들과 마르타, 마리아와 라자로와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니코데모, 엠마오의 제자들과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매우 친숙하다. 그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장면의 참가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그들을 알게 되었다."¹⁹

이렇게 기도하는 것의 타당성은 많은 성인의 생애와 가르침에 의해 확인된다. 그것은 또한 최근 교황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복음서에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씀 묵상'(lectio divina)의 실천으로 추천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며 차분하게 복음서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그것이 무엇이였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현장에 투입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땠는지 상상할 수 있고, 예수의 얼굴을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어떤 종류의 설명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고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에서 유래된 고문(古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주해가 있는 판을 사용하고, 복음서와 성경에 관한 좋은 책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구절을 다시 읽으며 우리는 묻는다, "주님, 이 말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제 인생에서 바뀌길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구절에서 저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왜 이 구절에 관해 관심이 없는 거죠?" 또는 아마도: "제가 그것에 관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말들이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저를 끌어당기는가요?"²⁰

아마도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수가 이 구절에서 저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자기 삶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니,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어떤 암시가 느껴지고, 깨달음이 오며 주님의 부드러운 질책도 들을 것입니다."²¹ 때때로 그것은 우리의 사랑, 자기희생에

대한 열망과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서 이끌어 낼 것이다. 우리 주님의 삶을 이처럼 비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이다. 그것은 "하느님을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내면에 진정으로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현실의 관점을 만드는데 장애가 되고, 우리 내적 "그리스도의 마음"(1코린 2,16)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²²

성경을 통해 예수와 가까이 지내는 방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다. 성 호세마리아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과 관상에 유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에 우리 자신도 "진정한 기도의 열매인 사랑의 화살기도나 통회의 행위, 감사기도, 청원기도, 결심"을 하게 된다. ²³

주님은 감실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대가 감실로 다가갈 때 그분께서는 2,000년

동안이나 그대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²⁴ 성체성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특권적인 '장소'이다. 이것은 또한 성 호세마리아가 따라온 길이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실재'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가 성체성사에 관하여 한 모든 일에서 볼 수 있었다. 1940년대 성 호세마리아를 처음 만난 엔카르니타 오르테가는 그가 처음 들은 묵상기도를 기억했다. 그녀는 어느 정도 호기심을 갖고 그곳에 갔다. "그의 잠심은 완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감실 앞에 놓인 그의 무릎절, 묵상 전에 준비를 위한 기도에 온 정신을 쏟는 모습,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격려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가 위대한 연사의 말을 듣고자 하는 나의 열망을 재빨리 잊게 했습니다. 대신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관대해야 한다는 것을 결심했다."²⁵

미사를 드리는 성 호세마리아를 본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우리 아버지 성인이 미사를 드리는 방식, 성실한 목소리 음조, 전혀 가식적인 흔적 없이 여러 가지 기도를 바쳤던 온전한 주의력, 그의 무릎절과 그 밖의 다른 전례 법규들, 모두 다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정말로 그곳에 계셨습니다."²⁶ 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몸짓의 어조, 기도의 강렬함, 잠심이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친절한 친구'인 성체 안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현존하신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드디어 첫 번째 학생 기숙사의 감실에 우리의 주님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때, 성 호세마리아는 그곳에 사는 학생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다른 '기숙생', 무엇보다도 처음 '기숙생'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각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DYA 기숙사'에서 나갈 때마다 무릎절을 하며 그분을 맞이하거나, 우리가 방에서 있을 때 생각에 잠겨 감실으로 가도록 격려했습니다."²⁷

우리가 이 작은 세부사항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영양을 공급한다. 우리가 성당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느님께 돌리고, 낮 동안 그분께 짧은 방문을 하고, 정신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미사를 따라가고, 우리의 상상으로 감실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거나, 우리의 일을 바친다. 이것들은 우리가 친구들을 보러 가거나 낮에 메시지를 보낼 때 하는 작은 세부적인 주의사항들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주위에 계신다.

사랑의 계명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이 계명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는 종종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가 현실로 예수님을 돌본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신다.²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 형제와 이웃 안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배워야 합니다." 29

성 호세마리아는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했다. 1930년대 초에 성 호세마리아는 마드리드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불쌍한 가족들을 방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리서를 가르쳤다. 나중에 오푸스데이에서 다가선 젊은이들에게 이런 염려에 대한 절박감을 전해주었다. 게다가 이 젊은이들은 자신을 위해 우리 아버지 성인의 인간적이고 신성한 애정을 체험했다. 예를 들어, 프란시스코 보텔라는 그들의 첫 만남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를 항상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를 맞이해주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을 관통하는 강렬한 눈빛과 기쁨과 평화로 나를 가득 채워 준 그분의 유쾌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저를 내면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동시에

그분은 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했기 때문에 제가 마치 제 가족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라고 했다. ³⁰ 특별히 감상적인 타입이 아닌 또 다른 젊은이는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를 훨씬 더 아껴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³¹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처럼, 그 젊은이들에게서, 성 호세마리아는 자기의 친구를 "찾았다". 몇 년 후, "반성하여, 영적 아들들을 둘러메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자녀 여러분, 제가 당신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침묵이 흘렀고 계속하셨다. '당신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피를 당신의 혈관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³² 그의 친구 예수님은 그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찾도록 이끌어 주셨다. 우리는 복음서와 성체성사에서 그분을 찾는 것 외에, "소외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섬기고, 소외된 사람들, 굶주림과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별거벗고 투옥된 사람들,

병자들, 실업자들, 박해받는 사람들, 난민들과 이주민들에게서 예수님의 신성한 육체를 만져주기 위해 불려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을 찾고 주님을 만집니다."³³

각주

¹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III, 6, 11: "당신은 나의 가장 내밀한 자신보다 내 안에 더 깊이 계십니다."

² 성 호세마리아, 「길」, 88.

³ 베드로 로드리게스, 「길의 비판-역사판」, 88항에 대한 해설.

⁴ 성 호세마리아 「개인 메모」, 1637(「길의 비판-역사판」, 422항에 대한 해설) 그가 퇴각한 첫날은 1932/10/4 였다. 이 텍스트는 「대장간」의 2항 지점의 기초가 되었다.

⁵ 성 호세마리아, 1947/12/29 편지. 바스케스 드 프라다, 「오푸스데이의 창시자」, I, 231 참조.

- ⁶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169.
- ⁷ 성 호세마리아, 「길」, 422.
- ⁸ 성 호세마리아, 「길」, 244, 436.
- ⁹ 성 호세마리아, 「대장간」, 495.
- ¹⁰ 살바도르 가나르스, 「친구이신 예수님」, 1장.
- ¹¹ 성 호세마리아, 「길」, 91.
- ¹² 성 아우구스티노, 「혼잣말」, II, 1, 1.
- ¹³ 예수의 성녀 테레사, 「인생」, 8장, 5.
- ¹⁴ 성 호세마리아, 「대장간」, 738.
- ¹⁵ 성 호세마리아, 「교리교육의 두 달」, 제2권, 651.
- ¹⁶ 스콧 한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성서의 독자」
로마나, 40호(2005), 176.
- ¹⁷ 프란시스코 보테야.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 구연,
「오푸스테이의 역사에 DYA 학원-기숙사」, 429 참조.
- ¹⁸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53.
- ¹⁹ 알바로 델 포르티요, 「그리스도가 지내고 계시다」,
머리말.

- ²⁰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013/11/24, 153.
- ²¹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53.
- ²²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 2010/09/30, 87호.
- ²³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 「성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일상생활에서 기도의 스승」, 2006.
- ²⁴ 성 호세마리아, 「길」, 537.
- ²⁵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브라다, 「오푸스테이 설립자」, 2권, 394-395 참조.
- ²⁶ 프란시스코 폰스.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브라다, 「오푸스테이 설립자」, 2권, 294 참조.
- ²⁷ 「DYA 학원-기숙사」, 342.
- ²⁸ 마태 10,40; 마태 25,40; 루카 10,16 참조.
- ²⁹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111
- ³⁰ 「DYA 학원-기숙사」, 431.
- ³¹ 후안 히메네스 바르가스, 「DYA 학원-기숙사」, 443.

³²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브라다, 「오푸스데이 설립자」,
3권, 223.

³³ 프란치스코 교황, 십자가의 길, 세계청년대회,
2016/07/29.

3.

"예수님의 오른손 상처에서"

사도 요한은 부활의 날 저녁에 회상한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요한 20,19)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요한 20,19-20) 갑자기 그들의 낙담은 깊은 기쁨으로 변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가져온 평화로 가득 차서, 선물인 성령을 받았다.

이 복음서 장면의 많은 세부사항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사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뜻밖에 나타났다. 예수님의 현존으로 그들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찼다. 우리는 그의 언동 중 일부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도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그분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친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견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약점이 깊은 회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난을 겪기 전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루카 22,31-32). 이제 사도들의 마음은 뉘우침이었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더욱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들, 베드로는 그들의 머리로서, 자신의 힘에 너무 많이 의존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도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을까? 이것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를 보니 슬픔이 아니라 평화로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 제대로 보면 이 못과 창자의 자국은 하느님의 사랑의 인장이 된다. 예수님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후 자기의 몸에 남아 불신의 흔적을 없애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을 결코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고, 심지어 우리의 평범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기도 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토마스 사도의 의심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들은 틀림없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진정으로 죽고 부활하셨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예수님의 상처는 추문이고, 믿음의 걸림돌이지만, 믿음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위에 그 상처들이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상처들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영원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들은
하느님을 믿는 데 필수적이다.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사랑, 자비, 충실하다'라고
믿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1베드 2,24, 이사 53,5 참조)"¹

영적 작가들은 예수님의 상처들에서 기쁨의 원천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성 베르나르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열린 상처들을 통해, 저는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빨아 먹게 하시고 차돌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신명 32,13) 즉, 저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맛 보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². 이
상처들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된다. 뚫린 가슴에서 성령의 선물들이
흘러나온다.(요한 7,36-39 참조) 예수님의 상처들은
확실한 피난처다. 이렇게 벌어진 상처들의 깊이를
발견하면 우리 내적 생활에서 '새로운 바다' 이어질 수

있다.

"예수님의 오른손의 거룩한 상처"

아빌라의 성 요한은 "그리스도의 상처에 몸을 담아라."라고 충고한다. "저기 예수님의 비둘기가 사는 곳입니다. 바로 그 비둘기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찾는 영혼입니다."³ 유명한 기도문인 "주님, 저를 당신의 상처들 속에 숨겨 주소서." 성 호세마리아도 그리스도교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예수님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방식에 의지하고 있었다. 성 호세마리아가 1933년에 쓴 것처럼: "저는 매일 예수님의 한 상처에 몸을 담습니다."⁴

이것은 성 호세마리아가 평생 실천한 헌신 중 하나이며, 그와 가까이 있었던 젊은이들에게 추천한 헌신이다.⁵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새롭고 거대한 파노라마를 열어준 경험 덕분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부르고스에 사는 동안 스페인 내전 중에 일어났다.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오푸스데이에 있는 그의 영적인 자녀들은 스페인 전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일부는 전선에, 다른 일부는 여러 곳에 숨겨져 있거나 그의 어머니와 누이동생, 그리고 동생을 포함한 종교적 박해에 시달리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의 영적인 딸들에 대한 소식은 그에게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 전에 그를 따라온 청년 중에는 몇 사람이 죽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성 호세마리아는 자신의 노력과 기도, 특히 참회 행위도 배가(倍加)시킬 필요성을 보았다. 그러나 1938년 6월 초, 성 호세마리아가 논문을 위해 연구를 하는 '라스 후엘가스'의 수도원으로 걸어가던 중,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았다. 같은 날 후안 히메네스 바르가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일에 대해 말했다.

"사랑하는 후아니토: 오늘 아침 기도를 하러 라스 우엘가스 수도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지중해'를 발견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의 거룩한 상처였다. 그곳에서 저는 온종일 입 맞추고 흠모했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거룩한 인류가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스러운가요!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허락하여 저의 다른 모든 애정을 완전히 정화하기를 기도해. '마음이여, 마음은 십자가에 달려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중 하나가 정화하고 치유하고 달래고 강화하며 타오르게 하고 황홀하게 한다면 십자가에서 달린 다섯 상처는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라! 오, 예수님, 제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신 성 요셉이 저를 이 관상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요. 저는 성 요셉에게 해 달라고 청한 후에 나를 타오르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때보다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후아니토, 직접 해 보세요!"⁶

성 호세마리아는 벌써 하느님의 거룩한 인성과 예수님의 상처들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뜻밖에도 그 모든 것을 '새로운 바다'로 보았다. 성 호세마리아는 그 상처들이 보여주는 구속적인 사랑을 더욱 깊이 움켜쥐었다. 그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을 하는'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받은 손에 넣고 그 상처를 바라보고 이 사랑으로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 호세마리아의 편지는 계속된다: "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꽤 질투가 납니다. 만약 제 길이 그렇게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도일 신부님의 행동을 극복하는 것이 멋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간다."⁷ 하지만 참회하는 것이 저에게 매우 힘들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게 꽤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길, 즉 사랑으로 이끌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의 길은 사랑하고 사랑받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후아니토, 제 영적 아들, 조심하세요. 주님께서 마음속에 계십시오! 크게 포옹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의 상처로부터, 아버지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⁸

그 사건 그 뜻밖의 빛은 희망의 표시이며 성 호세마리아의 사제업무에 대한 격려였다. 성령의 빛 덕분에, 성 호세마리아 자신이 이미 경험하고 다른 이에게 권유한 - 잘 알려져 있고, 현실적으로도 종종 깊게 사색하던 - 길이 한없이 풍요로운 서체인 "새로움"이 되었다. 그는 그 새로움으로부터 분리되길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방어하다

예수님의 상처들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극단으로 치닫던 그의 사랑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하느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누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관상은 우리에게 희망의 원천이다. 수난이라는 표시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정확히, 그분의 쇠약함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사랑의 가장 위대한 지점- 희망이 확장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 한 명이 '희망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십자가에서 탄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받을 것입니다.⁹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망은 태어나서 항상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모든 패배가 승리로, 모든 실망이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¹⁰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로마 8:35.37)

우리의 나약함과 죄를 보자마자, 그 유혹은 희망을
잃기 위해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쓸 수 있다. 경박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과거에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아니오'로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께 우리가 가한 타격이다.
우리의 미온적이고 미약한 대응도 희망을 잃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태초에 우리를
타락시킨 자(사탄)의 일련의 유혹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고”(아가
8,6)라는 말을 상기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상처들을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그분의 사랑은 죽음을 정복했다. 현대 시인이
웅변적으로 썼듯이, "그분의 옆구리와 상처의 내부는
수많은 '아니오'로부터 보호받았고, 그 많은
행복으로부터 그 많은 미약한 '예'로부터 아무것도
이끌어내지 못했다."¹¹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인성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들을
받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다. 그분의 거룩한 인성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서체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약점, 배신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말기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네가 잘 행동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보물이다. 그리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예수님의 육체에 있는 열린 상처들을 관상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묵상은 우리를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울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 "저는 제 삶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표정, 그분의 인내심을 너무나 자주 보아왔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상처들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고, 제 가난을 받아들이고, 제 죄를 당신의 상처에 숨기고, 당신의 피로 씻으시오.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느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위로하시고 정화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¹²

우리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나 굴욕이 아니다. 만약 하느님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분의 원동력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환영하기를 바란다.

연민의 길

예수님의 상처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성 호세마리아는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분의 거룩한 상처 안에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 신적 사랑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과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¹³라고 충고했다.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가 상상력으로 복음서의 장면에 얼마나 자신을 담는 것을 좋아했는지 안다. 예를 들어, 거룩한 묵주기도에서 그분은 영광의 신비 제1단을 묵상할 때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단이 끝나기 전에, 당신은 예수님의 발에 있는 못 자국에 입 맞추십시오. 당신보다 더 작은 아이인 나는, 더 심하게 찢기고 열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입술을 맞춥니다."¹⁴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는 성 호세마리아와 함께 보낸 그의 세월에 관한 책을 썼다. 그 책에서 그는 성 호세마리아가 미사 후 감사기도를 어떻게 보냈고 매일 그의 삶의 사랑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새롭게 했는지를 회상했다. "그는 몇 분 동안, 바닥이나 '무릎대' 위에 무릎을 꿇곤 했고 손에 들고 있는 주머니 십자고상을 보며 '착하시고 온화하신 예수님, 저를 바라보소서'라는 기도를 바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경건하게 상처 하나씩 입을 맞추시곤 하셨습니다."¹⁵

성 호세마리아는 6월 그 아침에 예수님의 상처들을 깊이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또한 성모 마리아처럼 그분과 함께 공동 구속을 하기 위한 초대가 된다. 그분의 다른 '키레네의 시몬'이 되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기에 많은 범죄에 대해 위로해 준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형제자매 중 최소한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요청이다. 예수님은 이 형제자매들과 매우 친밀하게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 안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셨다.(마태 25,40 참조)

이 '새로운 바다'를 성 호세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특별한 빛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마드리드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보낸 많은 시간의 맥락에서 보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보여 준다: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성 호세마리아에게 이것은 확실한 길이였다.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상처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분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약점을 볼 때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과 같은 부드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하는 것을 배운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은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에 의지하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에게 의지하여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뿌리는 것이다. 교황은 이 점에 대해 끈질기게 주장한다. "때로는 주님의 상처들을 가까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을 만지고, 타인의 고통받는 육체를 만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우리는 한 민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민족의 일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격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¹⁶

연민과 사색의 길로 예수님의 상처들에 '자신을 넣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바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우리는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종종 우리 곁이나 우리 주변이나 우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각주

¹ 프란치스코 교황,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 강론, 2014/04/27.

² 성 베르나르도, 설교 61(아가에 대한 해설), 4.

³ 아빌라의 성 요한, 편지 47. 아가 2,16 참조.

⁴ 성 호세마리아, 「개인 노트」, 1799b, 1933년. 「거룩한 묵주기도의 비판-역사판」, 2010, 참조. 영광의 신비 제1단에 대한 해설, 226, 5.

⁵ "매일, 옛 결심을 이행하면서, 나는 주님 옆구리의 상처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다." 성 호세마리아, 「개인 노트」, 1763, 1934년(「길의 비판-역사판」, 288 참조)

⁶ 성 호세마리아, 후안 히메네스 바르가스에게 보내는 편지, 1938/06/06.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브라다, 「오푸스테이 설립자」, 2권, 213-214 참조)

⁷ 아마도 윌리엄 도일 SJ 신부. 아일랜드 신부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전선에서 목사로 많은 영웅적인 봉사를

한 후 사망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기쁨이 필요하지만 까다로운 금욕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가톨릭 백과사전, 제4권, 1031)

⁸ 성 호세마리아, 후안 히메네스 바르가스에게 보내는 편지, 1938/06/06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브라다, 「오푸스테이 설립자」, 2권, 213-214 참조)

⁹ 프란치스코 교황, 일반 알현, 2017/04/12.

¹⁰ 프란치스코 교황, 일반 알현, 2017/04/12.

¹¹ 훌리오 마르티네스 메산사, 「Defendido」, Gloria, 2016.

¹² 프란치스코 교황, 강론, 2013/04/07.

¹³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303.

¹⁴ 성 호세마리아, 「거룩한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제1단.

¹⁵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님, 「호세마리아 복자에 대한 추억」, 235.

¹⁶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013/11/24, 270.

4.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루카 24,49)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렸다. 사실 약속, 선물은 하느님 자신, 성령이셨다. 며칠 후 그들은 오순절에 이 선물을 받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찼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제자들은 성령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정신과 마음은

새로운 빛을 향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¹ 그날 사도들은 대담하게 선포를 시작했다. 성경에 이르기를 성 베드로의 말씀을 환영하는 자는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사도 2,41).

성 호세마리아는 우리에게 선물인 성령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는 현실임을 자주 상기시켜주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베드로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생명을 소유하셨고,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² 먼저 세례성사에서, 그리고 확인성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인 삼위일체의 생명이라는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을 발견

하느님의 선물,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물건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교적인 삶은 우리의 영혼 속에 살게 되시는 하느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잘 알려진 진리, 신앙생활의 근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발견해야 할 것일 수도 있다.

성 호세마리아의 작품에 가장 친숙한 사람 중 한 명은 "1932년 내내 성 호세마리아의 성령 헌신이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³ 몇 달 동안 성령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한 뒤에 그는 특별한 빛을 받았다. 그날 성 호세마리아가 쓴 쪽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모든 성인의 팔일. 화요일, 1932/11/08: 오늘 아침, 아직 한 시간이 못 지났는데 산체스 신부님은 저에게

'다른 지중해'를 밝혔습니다. 제에게 '성령과 친구가 되세요.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세요.'하고 말했습니다. 레가니토스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도를 하는 동안 제 기도는 온화하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제가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전에도 친구로서, 형제로서, 애인으로서 흠모하는 예수님께 닿기 위해 마리아를 거쳐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령이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하려고 거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이 존재한 진리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산체스 신부님의 말씀이 제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사랑-하느님을 느끼고, 성령을 알게 되고 싶고, 그분의 친구, 그분의 측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성령의 광택을 내고, 뿌리를 뽑고,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는 일을 촉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원한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원합니다. 하느님 거룩하신 손님, 주인님, 빛, 지도, 사랑: 이 가엾은 당나귀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저는 불타오르고,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결심: 가능하다면 끊임없이 성령과의 우정과 사랑스럽고 유순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님!"⁴

이러한 노트에서 성 호세마리아는 하느님이 그를 인도했던 영적 여정을 요약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임을 발견, 예수와 마리아의 전구의 역할, 그리스도와 우정의 보물...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의 일이다. 몇 년 후에 성 호세마리아가 썼듯이, "이제 우리 마음은 거룩하신 성삼위를 각각 구별하여 흠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영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며, 생명을 주시는 파라클리토, 인간 측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온갖 선물과 초자연적 덕들을 선사하시는 성령의 업적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⁵

은총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실은 성 호세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살아 있는 경험으로서 이 진리를 그 모든 깊이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적 지도의 말씀에 눈앞에 새로운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무엇인가가 되었다. "제 안에서 사랑 -하느님을 느낍니다."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성 호세마리아는 완전히 반응하고 자신을 사랑의 봉사에 앞하기를 열망했다. "저는 성령을 알게 되고 싶고, 그분의 친구, 그분의 측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성령의 광택을 내고, 뿌리를 뽑고,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는 일을 촉진하고 싶습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는 그것을 하실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힌다, 만약 그가 하느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느님의 선물을 환영하기

성 호세마리아가 발견된 이 '새로운 바다'에서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행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점이다. 몇 주 후에 그것으로 '길'의 57항은 영감을 받았다: "성령과 사귀십시오.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분, 그대를 성화하는 영 말입니다." 우리를 성화하시는 하느님은 흔히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분'일지라도 우리의 성덕은 하느님의 작품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중요한 점이 바로 인간의 행동과 우리 자신의 노력 결과라고 여기므로(인간의 행동과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므로), 우리는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이 결국 자유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성 바오로가 말씀했듯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에페 2,8) 확실히, 우리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교가 은총이다'라는 확실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심에 만족하기보다는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과 자신을 똑 같이둔다는 신의 경이로움에 있다.⁷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발견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께서서는 그곳에 먼저 도착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찾으러 가지만, 그분은 우리를 먼저 찾습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⁸

이 발견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인 인생관의 본질적인 원리, 곧 은총의 우위성"⁹이 탄생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새 천 년을 위해 교회를 준비했던 말씀은 세월이

흐를수록 완전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교황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사도적 사명을 해칠 수 있는 유혹을 경계하게 했다: "모든 영적 여정과 사목활동에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결과가 우리의 행동과 계획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유혹입니다."¹⁰ 이 함정에 빠지면 우리의 내적 생활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덜 격렬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우리의 변절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만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성공하게 하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도적 활동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 의해 성장합니다."¹¹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 가치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적게 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가치를 잃는 것도 아니다. 그 가치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 삶을 하느님께서 가지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며,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¹²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선행(에페 2,10 참조)을 위해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위한 진정한 출발점은 하느님의 선물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하느님 자녀들의 삶을 표시하는 희망에 찬 자아 포기 속에서 살게 한다.¹³

"성령과 사랑스럽고 온순한 대화를 촉진하기"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 것은 한 분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에 대한 산체스 신부의

조언을 이해할 수 있다: '성령과 친구가 되세요.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정은 사람 사이에 있고, 대화를 통해 성장한다. 그러므로 성호세마리아는 마음 속에 있는 개인적인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면서 결심: '가능하다면 끊임없이 성령과의 우정과 사랑스럽고 유순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는 길이다: 성령의 행동에 끊임없이 자신을 열고, 그분의 영감을 듣고, 그들 스스로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요한 16,13).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약속하셨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요한 14,26)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로서,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요한 16,13)이기

때문이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에 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과 일을 활기차게 해 주는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¹⁴ 실제로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로마 8,14) 우리는 '듣기 어려운 학과'에 대해서 날마다 수련하는 만큼 성령에게 이끌리도록 내버려 두신다. ¹⁵ 성령과의 우정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목소리는 "일상의 사건, 기쁨과 괴로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진실과 행복, 선함과 아름다움에 목말라하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출간된 베네딕토 16세와의 인터뷰

책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다. 기자는 속으로 끔찍하게 외로움을 느꼈을 때 어떤 외로운 시간을 경험했느냐고 물었다.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물론입니다만,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결코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단히 알 수 있고 또한 제 혼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그곳에 계십니다. 저는 오직 그분을 위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만 해야 합니다."¹⁷ 평생을 하느님과 나누고 그분과 우정 속에서 살겠다는 목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들어주고 하느님을 위해 활짝 열어주느냐고?" 전임 교황은 웃었고 기자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라고 계속 말했다. 그러자 베네딕토 16세가 대답하였다. '자, 이제 자기 자신은 주님께 간청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저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잠자코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기도로 문을 두드릴 수

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은 이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¹⁸

성령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방법을 배우기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아마도 고의적이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을 바랄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삶은 더 일상적인 일이다. 비범한 예의를 찾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 자신이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것"¹⁹을 자각해야 한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로마 8,14) 성령은 보통 우리를 특정한 지시로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길에 빛과 영감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의 작고 위대한

사건들을 조명한다. 우리는 전에 흐리고 불확실했던 어떤 것의 의미를 보여 주는 빛과 함께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세부적인 것들을 차례로 본다.

이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요? 천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다. 성서나 성인들의 저술이나 영적인 독서를 읽는 것;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친구 사이에 대화하는 것이나 뉴스를 읽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무언가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순간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성령은 자신 안에 형체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의 이해와 자유에 의존하신다. 이 영감을 우리의 기도 안에서 가져오고, 날마다 천천히 묵상하고, 기도를 멈추고 주님께 묻기를, "저를 걱정하는 이미 일어난 일, 여기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인내적인 귀 기울임 가운데에서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 악마로부터의 유혹 등

매우 다른 것들과 섞여서 우리의 가슴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는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단단하고 빠른 규칙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존재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표징들이 있다. 첫째, 우리는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은 성서에서 발견되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성소와 반대되는 무언가를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영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마태 7,20); 사도 바오로 말대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갈라 5,22-23).

교회의 영적 전통은 그 가르침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 영혼에 평온을 가져다주시고, 악마는 끊임없이 동요를 일으킨다."²⁰ 하루 동안 우리에게 많은 "좋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봉사의 생각,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 타인을 용서하는 생각 등. 흔히 이런 좋은 생각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령에서 영감을 얻으면 평화로움이 깃든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도움으로 성령에 대한 유순함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지평이 영적인 방향의 맥락에서 성 호세마리아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성 호세마리아가 받은 조언("성령의 말씀을 들으세요")은 또한 산체스 신부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성 호세마리아의 영혼의 지도를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성령의 광택을 내고, 뿌리를 뽑고,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는 일을 촉진합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즉, 성령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영혼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그를 둘러싼 세상의 사건들에서 하느님을 보는 것을 조금씩 배운다.

성령의 숨소리와 함께, 하느님의 사랑에 닿을 내렸다

항상 우리 주님의 승천 이후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 우리는 사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가는 임무를 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진행하라'고 도전하시는지"²¹ 또한 교황은 이 사명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완수할

힘을 주셨다고 지적한다. 사실, 이 역동성은 "전략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는 사랑이신 성령의 실제적인 힘"이다.²²

희망에 대한 교리교육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다. 교황은 교회의 교부들이 사랑한 비유를 사용한다. 히브리서는 희망을 '닻'에 비유한다. 우리는 '돛'의 비유를 추가할 수도 있다. 만일 닻이 바다의 물결 속에서 배에 안정감을 주고 계속 정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돛은 물 위를 움직이게 하고 전진하게 한다. 희망은 진실로 돛과 같다. 성령의 바람을 모아 배를 밀어내는 추진력으로 변모시킨다. 바다나 해안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다.²³

하느님의 사랑 깊숙한 곳에 닻을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 성령에게 온순하게 대하면서 하느님의 힘으로 성령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 성 호세마리아가 주장하듯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아무것도 지탱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과 영감에 의지하면서" 매우 높이 "날아야 합니다."²⁴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기도의 깊은 숨결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²⁵ 최근에 교황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를 움직이신 것과 똑같은 성령으로 이행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종종 상기시켜 왔다. 기도는 성령과 끊임없이 신뢰하는 대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는 하느님 존재의 '새로운 바다'를 발견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 "깊은 데로 저어 나간다"(루카 5,4). "우리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온갖 다정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빛, 불, 힘찬 바람 덕분에 불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위대한 불이 타오를 수 있게 됩니다."²⁶

각주

- 1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127.
- 2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128
- 3 베드로 로드리게스, 「길의 비판-역사관」, 57항에 대한 해설, 251-252.
- 4 베드로 로드리게스, 「길의 비판-역사관」, 57항에 대한 해설, 251-252.
- 5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306.
- 6 베드로 로드리게스, 「길의 비판-역사관」, 57항에 대한 해설.
- 7 성 요한 바오로 2세, 「새 천년기」, 2001/01/06, 4.
- 8 세르지오 루빈 -프란치스카 암브로제티, 「프란치스코 교황, 호르헤 베르고글리오와 대화」, 2013, 48.
- 9 성 요한 바오로 2세, 「새 천년기」, 38.
- 10 성 요한 바오로 2세, 「새 천년기」, 38.
- 11 성 호세마리아,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몬시놀과의 대화」, 40.

- ¹²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134.
- ¹³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 2017/02/14 사목 서간,
8.
- ¹⁴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127.
- ¹⁵ 성 요한 바오로 2세, 연설, 2004/06/05.
- ¹⁶ 성 요한 바오로 2세, 연설, 2004/06/05.
- ¹⁷ 페터 제발트 - 베네딕토 16세 교황, 「마지막 이야기」, 2016, 234-235.
- ¹⁸ 페터 제발트 - 베네딕토 16세 교황, 「마지막 이야기」, 2016, 234-235.
- ¹⁹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130.
- ²⁰ 필립, 제크스, 성령의 학교에서. 리알프, 2005. 53.
- ²¹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복음의 기쁨」,
2013/11/24, 20.
- ²²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 2017/02/14 사목 서간.

- ²³ 프란치스코 교황, 일반 알현 2017/05/31.
- ²⁴ 성 호세마리아, 「대장간」, 994.
- ²⁵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62.
- ²⁶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44.

5.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 몇몇 다른 여자들, 사도들 중 막내인 요한만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왔다.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이 몇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 이들 몇 명뿐이군요!! 구경꾼과 기회주의자, 그분을 갈바리아로 데려온 소수의 병사, 그분을 계속 조롱하는 고발자들, 아마도 그들의 '승리'를 음미하는 군중이 모여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도망갔다.

요한 사도 자신이 우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 성 요한이 결론짓는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7).

젊은 요한 사도에게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모든 개인과 모든 인류에게 어머니로 주어집니다."¹ 그 순간부터 성모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이다. 첫 제자들은 이것을 바로 잘 이해했다.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승천한 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첫 제자들은 성모 마리아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14).

우리 역시 마리아 모성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성 요한처럼 반응하도록 불린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분을 자신의 내적 삶, 즉 인간과 그리스도교적인 자기 삶으로

만드는 모든 것으로 인도한다." ² 우리 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각자의 속도로, 이 개인적인 여정을 떠나야 한다.

"저는 제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어린 시절부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다. 1970년 5월 과달루페의 성모상 아래서 구일기도 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특히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어린 시절을 회상할 것을 권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성모 마리아께 처음으로 말씀했던 때를 기억해 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지금 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³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를 토레시우다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 호세마리아는 또한 부모로부터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을 기억하곤 했다: "저는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가끔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부모님께 배운 봉헌기도를 바칩니다: '오 저의 어머니! 저 자신을 오롯이 어머니께 바칩니다. 제 효성의 증거로 오늘 제 눈, 제 귀, 제 혀, 제 마음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⁴

사라고사에 사는 동안, 성 호세마리아는 매일 필라르 성모 대성당을 방문했다. 성 호세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그에게서 특별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영감을 성모님의 전구에 신뢰했다. 아직도 석고로 만든 가엾고 작은 필라르의 성모상이 가지고 있다. 그 성모상 밑면에는 성 호세마리아가 “성모님께 맡겨 드리세요”와 1924년 5월 24일 날짜가 못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몇 년 후에 "그것이 제가 몇 년 동안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화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토록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해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⁵

마드리드에서 성 호세마리아는 "입맞춤의 성모님"이라고 불리는 성모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집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반드시 인사로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 성모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모화가 그를 감동하게 했다. 특히 그가 거리에 내던져진 채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한 성모화들, 또는 그가 성녀 엘리사벳의 파트로나투에서 떠나면서 매일 그의 관심을 끄는 유약을 탄 사진처럼 마드리드의 거리에 가는 동안 눈에 띄었다."⁶

성 호세마리아는 복음을 묵상하면서 첫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모 마리아와 가까이 지내며 그분께 의지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 사랑스러운 어린 관상의 결심인 '거룩한 묵주기도'에서 성 호세마리아는 영광의 신비 제2단에 대해 말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루카 24,52) (...) 그러나 당신과 나는 고아가 된 느낌입니다. 슬퍼진 우리는 위로를 받고자 성모님께 다가갑니다."⁷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모성은 아직 젊은 사제인 성 호세마리아가 발견했던 것 중 하나였다. 1932년 9월에 그의 개인 노트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어제 저는 또 다른 바다를 발견했습니다: 만일 제가 제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저는 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⁸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 호세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에서 명상하고 경험했던 진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영적 궤적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저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 갔고, 저는 비록 제가 그렇게 나쁜 아들이었음에도 항상 그분을 제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잘할 겁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성 호세마리아를 예수께로 데려오셨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성 호세마리아의 끈질긴 탄원서에서 그의 주된 중재자였다. 그렇다면 이 발견의 새로운 점은 무엇일까? 성 호세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는 제 어머니신 마리아의 자녀임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았고, 어제 그것을 더욱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에서 영성체하는 동안, 제 어머니신 동정 마리아께 "저에게 새로운 옷을 입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축일 중 하나를 축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청원은 지극히 당연하였습니다."⁹

"새로운 옷을 입으세요"라는 비유는 성 바오로의 강한 메아리를 가지고 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에페 4,22-24)

그러므로 이러한 성모 마리아의 모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회개라는 온 맛을 지니고 있었다. 성 호세마리아는 그것을 더 새로운 방식으로 분명히 느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깊은 결심으로 이어진 현실이었다. 이제부터 저는 잘할 겁니다.

성 호세마리아의 저술을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 발견의 여정을 강조하였다. 자기 앞에 열린 이 새로운 바다를 설명한 지 8일 후, 그는 나중에 길에 나타날 또 하나의 노트를 썼다. "언제나 마리아님을 통해 예수께 가고, 또 예수께 '되돌아'갑니다."¹⁰ 그것은 꽤 오랫동안 성 호세마리아의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던 사상이었으나, 그는 갑자기 그것을 새로운 깊이로 이해했다. 그것은 그에게 하느님과 관계에서 성모 마리아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분명히 했다. 이 메모를 쓴 지 4일 후, 성 호세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제가 그들의 귀에 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를 외치고 있습니까! 마리아님께 속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¹¹

여러 해 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을 때, 성호세마리아는 "저는 당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러한 영혼들이 영적인 삶을 위한 기초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모 마리아에 효성적인 신심이 있다면 영혼들은 자기 어떤 상태에 있든지(미혼, 결혼, 과부, 사제) 간에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¹²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모 마리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느님께 이끄신다. 우리 동정 마리아님은 우리가 하느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편히 이끄시는' 분일 뿐이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같은 1932년 9월, 성 호세마리아는 우리의 동정 마리아님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에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 몇 번이고 묵상했다. 이제 성 호세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거나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성 호세마리아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새로웠다. 예를 들어, 알바로 복자는 스스로 그것에 놀랐다는 것을 기억한다: "저는 우리의 아버지 성인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글을 쓰셨습니까?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잘 모릅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아들, 누군가가 죄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는 불행에 있거나, 또는 미지근하거나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분리의 지경에 처해 있다면, 그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고 다시 힘을 찾습니다. 즉, 필요하다면 고해성사로 갈 힘, 형제적인 대화로 가기 위해 그리고 위대한 성실함으로 그의 양심을 열기 위해서... 그 영혼에 어두운 점을 간직하지 않고, 악마와 비밀을 공유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갑니다."¹³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진다. 물리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노인들이 길에서 넘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삶에서도 사실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굴욕감을 준다 ; 우리는 '게임의 이 단계에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는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기쁨을 빼앗는 희망의 상실에도 굴복할 수 있다.

절망은 우리 자신의 마음 문을 닫는 미묘한 적이다. 절망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미묘한 적이다. 우리는 마치 전자 기기를 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처럼 하느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를 보자마자, 하느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길 원하신다! 하느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셨듯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예레 1,5)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고한 안정감을 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이 진실조차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우리의 성모님도 그랬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쉽게 해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¹⁴ 성모 마리아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베네딕토 16세는 마지막 일반 알현 때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품에 어린이처럼 맡겨주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팔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며, 우리가 매일, 심지어 상황이 험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저 하느님께 모든 사람이 사랑을 느끼길 바란다. 저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을 느끼길 바랍니다."¹⁵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부성적이고 모성적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하고 싶어 하셨다.

하느님에 대한 모성적인 사랑은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표현된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은 이사야의 구절일 것이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또는 더욱 명시적으로: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이사 66,13) 그런데도 하느님은 더 나아가고 싶어 하셔서 사랑하는 외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 결과로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모 마리아에게서 특권적이고 용서하는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

때때로 우리는 추상적으로 보이거나 멀리 보이는 하느님을 다루기가 어렵거나, 예수님을 직접 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소중한 물건을 깨뜨렸을 때 아버지와 대면하기보다 어머니에게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죄인이 여전히 '성모송'을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의 기도'를 말할 수 없다."¹⁶ 그래서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성모 마리아께 아이들의 부드러움과 함께

성 호세마리아의 삶에서, 성모 마리아의 중요성에 대한 발견은 살아 있는 영적 어린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 호세마리아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유래한 '길'의 한 항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머니!" 큰 소리로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그대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위험에 처한 그대를 보고 계십니다. 그대의 거룩한 어머니인 그분은 틀림없이 당신 아드님의 은총과 더불어 그대를 안전한 두 팔로 안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새로운 투쟁을 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¹⁷ 당시 성 호세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자신의 경험이 이러한 본문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 몇 년 동안, 성 호세마리아는 또한 어린아이처럼 하느님과 가까이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거룩한 묵주기도' 책은 '길'의 일부 장들처럼 이러한 기도 방식의 결실이다. 우리가 방금 떠올린 '발견'은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의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성 호세마리아는 생애 이 길을 따라 다녔다. 지상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며칠 전, 그는 그 영적 아들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저는 보통 자아를 포기합니다. 저는 몸을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우리 성모님의 품에 안깁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작은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둘 다 우리 성모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두 제 길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길이 당신의 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 만세!!

이것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 '아이가 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겸손과 희망에 가득 찬 의탁 같은 태도를 쉽게 한다. 그것은 또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단순함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성장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약점과 의존성을 인식함으로써 두드러진 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즉 우리 자신의 친밀감의 문을 하느님께 더욱 쉽게 열어줄 수 있게 해 준다.

아이들은 연약하므로 사랑에 매우 민감하다; 그들은 어른들의 몸짓과 태도를 깊이 이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문을 하느님께 열어줌으로써, 우리 자신을 그분에 의해 '감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한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원하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충실한 삶을 원합니까?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시작하십시오!"¹⁹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진정한 부드러움의 희화화인 꾸밈이나 감정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재발견하고, 자신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을 찾는 길이 될 수 있다. 1932년 성호세마리아가 말했듯이, "제 불쌍한 마음은 부드러움을 갈망합니다.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아닙니다. 마음을 멀리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두었던 이 부드러움은, (우리가 하느님을 죽음으로 이끈), 성심의 부드러움으로 하느님을 찾았을 때, 만족하고 완전하게 성취됩니다."²⁰

우리는 부드러움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갈 수 있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자기의 어머니를 알기 시작하고 평생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실지도 모르는 이것과 다른 길로 우리는 거대한 새로운 바다로 들어간다. 그것은 모두 아름다운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가 있는 길이다.

각주

¹ 성 요한 바오로,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1987/03/25, 23.

² 성 요한 바오로,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45.

³ 성 호세마리아, 묵상기도의 노트, 멕시코 과달루페의 대성당, 1970/05/20, 베드로 카스시아로, 「꿈을 꾸면 당신의 꿈은 쫓아질 것이다」, 1997년, 321 참조.

⁴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96.

⁵ 성 호세마리아, 가족 모임의 노트, 1974/07/26. 이 복제품은 로마에 있는 오푸스데이의 로마 총평의회에 있는 성 호세마리아의 삶에서 온 기억의 화랑에 보존되어 있다.

⁶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브라다, 「오푸스데이 설립자」, 1권, 352.

⁷ 성 호세마리아, 「거룩한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제2단.

⁸ 성 호세마리아, 「개인 노트」, 820, 1932/09/05, 「거룩한 묵주기도의 비판-역사판」, 영광의 신비 제2단 참조.

⁹ 성 호세마리아, 「개인 노트」, 820, 1932/09/05, 「거룩한 묵주기도의 비판-역사판」, 영광의 신비 제2단 참조.

¹⁰ 성 호세마리아, 「길」, 495.

¹¹ 성 호세마리아, 「개인 노트」(「노트북 제6권」), 825, 1932/09/17. 베드로 로드리게스, 「길의 비판-역사판」, 494항에 대한 해설 참조.

¹² 성 호세마리아, 답소의 노트, 마드리드, 1972/10/23. 베드로 로드리게스, 「길의 비판-역사판」, 494항에 대한 해설 참조.

¹³ 알바로 텔 포르티요 복자와 대화의 노트, 마드리드,

1977/09/04. 베드로 로드리게스, 「길의 비판-역사판」, 495항에 대한 해설 참조. 성 호세마리아는 형제적 얘기'나 '영적 지도 대화'를 '신임'이라고 부르며 이를 표시해야 할 신뢰와 신중함을 강조했다.

¹⁴ "성모 마리아님, 우리 주님과 우리 자신 어머니 항상 하느님께 지름길을 제공하노라"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몬시놀의 저술에서 성모 마리아를 위한 사랑」, 팔라브라 잡지, 156-157호 (1978 년), 341-345.

¹⁵ 베네딕토 16세, 일반 알현, 2013/02/27.

¹⁶ 장 다니엘루, 「대림 시기」, 1950년, 112.

¹⁷ 성 호세마리아, 「길」, 516.

¹⁸, 에른스트 버크하트 - 하비에르 로페스,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에서 일상생활 및 성화」, 제2권, 68.

¹⁹ 프란치스코 교황, 연설, 2016/07/28.

²⁰ 성 호세마리아, 「개인 노트」, 1658, 1932/10/09. 베드로 로드리게스, 「길의 비판-역사판」, 118항에

대한 해설 참조.

에필로그

이 글에서 우리가 검토해온 다양한 새로운 바다들의 발견은 불가해한 방법으로 성 호세마리아의 마음을 넓혔다. 마치 예수님의 손에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성 호세마리아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했고, 그것은 그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아들로 느끼게 했다. 그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발견했고, 자신의 힘보다는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위안이신 하느님께 사랑받도록 하는 법을 배웠다. 조금씩 조금씩 성 호세마리아는 성령이 그의 영적 삶과 그의 세상에서의 행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것을 이해했다. 짧게 말하자면 그는 그리스도교적인 생활의 충만함이 일련의 과업을 완수하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그분의 신비를 살기, 그분의 본보기로 수행하기,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라는 것을 이해했다. 거룩함의 척도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성취하는 높이에서 비롯되며, 성령의 힘을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온 생활을 모범으로 삼습니다."¹

성 호세마리아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내적 생활의 새로운 바다 쪽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느님께 청할 수 있다. 그 새로운 바다들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곳이다. 그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여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도록"² 허락할 것이다. 더 이상 시급한 것도 더 아름다운 것도 없다.

각주

¹ 베네딕토 16세, 일반 알현, 2011/04/13.

²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시다」, 97.

오푸스데이 정보 사무소, 2018

<http://www.opusdei.or.kr/>